



◀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양욱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희망’으로 어려움 견디고 ‘용기와 꿈’ 담아 노래하다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이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지난 28일 공남문광장에서 열어 화제가 되었다. 전국 장애인가요제는 올해로 11번째다. 장애인가요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전주매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가 주관하며 유)유복이엔지, 투어컴여행사, 케이원글로벌, 주)하림이 협찬해 이루어졌다. 가수 겸 예씨인 서정우씨가 사회를 맡았다. 공식행사에서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의 이사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에는 김태수 씨가 전라북도 도의장 표창에는 김경남 씨

신동식 유복이엔지 대표, 후원금 전달 초대가수에 이성우·박부철 등 출연 대상, 전남 광양에서 온 배현우씨 금상, 익산에서 온 이세은씨 은상, 전주 윤석주·익산 이용세씨 동상, 김미경·김경화씨 장려상, 문용운·이부옥씨가 수상

꿈을 키워가며 어려움을 참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좀 더 긍정적이고 자기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할 때 더욱 삶이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가요제의 심사위원으로는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전북지회 김용철 회장, 도민가수 박부철, 김양욱 소장, 박화실 썸밴드의 단장이 맡았다. 노래자랑의 초대가수에는 '진또백이'의 이성우, 도민가수 박부철, 가수 강제은, 가수 주재연, 가수 박상복, 가수 윤혜수, 가수 박미경씨가 출연했다. 장애인가요제의 대상(전북도지사상)은 전남 광양에서 출전한 배현우씨가 금상(전북도지사상)에는 익산에서 온 이세은씨가 은상에는 전주 윤석주, 익산의 이용세씨가 동상에는 김미경, 김경화씨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장려상에 문용운(익산)씨, 이부옥(경남 창원)씨, 인기상에 류명현(익산)씨와 김동복(전주)씨, 노력상에 김유미(완주)씨와 신옥철(완주)씨, 특별상에 김창화(김제)씨, 황정수(전남 광양)씨가 수상받았다. /김민근 기자

가 전북도교육감 표창에는 김종길 씨가 전주 시장 표창에는 김경진 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유)유복이엔지 신동식 대표가 사랑의 후원금을 김양욱 소장에게 전달했다. 김양욱 소장은 "장애인의 복지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고장의 장애인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참여 복지가 되도록 앞장서자"고 말했다.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와



◀ 이 경연의 참가자로 무대에서 열창하는 김동복씨.



심사위원들의 심사.



시상하는 전주매일 조봉성 대표.



대상을 수상한 배현우씨(왼쪽)와 트로피를 세우고 있는 황의욱 부이사장(오른쪽).



금상을 수상한 이세은씨.



장애인 가요제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진또백이'를 열창하고 있는 초대가수 이성우.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한 신동식 유)유복이엔지 대표.



장애인 복지문제에 헌신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받는 김태수씨.



자원봉사자로 나선 완산경찰 시민경찰 봉사대원들.